

| 주제 :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실무 |

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 DB 구축 현황 및 서비스 계획

Status and Service Plan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DB

최정민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, jmchoi@kimst.re.kr

Jung Min Choi,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& Technology Promotion

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빅데이터가 이슈화 되고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·공유 정책 등으로 정부의 R&D 정보화 서비스도 다양화되고 있다. 특히 해양수산 R&D사업은 해양이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선박 및 특수 장비 등을 사용함에 따라 연구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임에도 해양수산 연구 자료 및 관측자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, 사업별·기관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, 이에 따라 연구 DB 통합관리의 수요가 제기 되고 있다.

이에 해양수산 R&D사업에서는 사업별 통합 DB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, ‘관할해역해양정보 공동활용시스템(JOISS)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. JOISS는 2012년부터 시작된 ‘관할해역 해양 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’과제를 통해 자료 표준화 연구와 함께 해양과학조사 분야의 R&D과제들과 실시간 해양관측망으로부터 산출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, 정보서비스를 구현한 시스템이다. 2016년 1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.

한편, 해양관측 데이터 수집·공유 서비스 외 해양수산 R&D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정보들을 나누고 소통하는 온라인 장을 구현하기 위해 ‘해양수산 R&D 지식정보 시스템(OFRIS)’ 개발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. OFRIS는 해양수산 R&D사업을 통한 데이터의 원활한 수집 및 품질관리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, 그 외에도 사업별로 분산·관리되고 있는 R&D 관련 정보를 연계하고, 기술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‘개방형 기술 정보 중개 시스템’으로의 역할, 국내외 해양수산 R&D관련 정책·연구·산업 동향을 엄선하여 제공하는 등 해양수산 R&D 종합 포털로서 기능 구현을 목표로하고 있다. 2017년 말 1단계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, 1단계에서는 시급성 높고, 수요가 많은 ① R&D동향, ② 과제이력, ③ 연구성과, ④ 기술거래, ⑤ DB공유 등 5대 기능을 우선 구현하고, 2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생산 및 분석 기능 강화, 3단계에서는 해양수산 산업통계, 인력, 교육 등의 정보를 서비스하는 포털로 확장할 계획이다.

JOISS, OFRI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해양수산 R&D의 정보를 수집 관리 하는데 있어 다양한 현안 문제 등이 도출되었으며, 그 중에서도 연구자들의 자발적 데이터 제공 협조,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검증,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 및 피드백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.

주제어: 연구 데이터, 해양수산 R&D, 데이터 수집, 데이터 공유